

# “2년차엔 달라야죠...이 악물고 내년 준비”

‘1군’ 맞본 KIA 2020신인 내야수 박민·홍종표

함평서 마무리캠프 16일부터 1군서 훈련 참여  
박민 “얼굴부상 앓았다 생각...내 할일 할것”  
홍종표 “1군 40경기 좋은 경험 근력훈련 주력”

KIA 타이거즈 2020년 신인 내야수 박민(19)과 홍종표(20)는 프로 첫해인 올 시즌을 아쉬워했다. 뭔가 보여주고픈 욕심은 많았지만 신인이었던 만큼 긴장도 많이 했고, 적응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함평 마무리훈련 캠프에서 만난 두 선수는 시즌을 어떻게 보냈는지 도 모르겠다고 돌아왔다. 하지만 1년 경험을 기반으로 일찌감치 2년 차인 2021시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고 했다. 내년에는 ‘이 악물고 해야 한다’며 마무리훈련부터 열심히 다. 정해진 훈련 외에 자투리 시간에도 웨이트를 하면서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구단 관계자의 귀뜸이다. 함평에서의 마무리훈련에 이어 16일부터는 1군 광주 마무리캠프로 옮긴다. 박민과 홍종표는 훈련이 길어진다는 것보다는 선배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

2차 1라운드 지명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입단한 박민은 두 차례나 부상을 입으면서 쉽지 않은 데뷔 첫해를 보냈다.

5월 KT와 퓨처스경기는 타석에서 상대 투수 공에 왼쪽 얼굴을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10월에는 상무와 퓨처스경기에서 수비 도중 튀어 오른 볼에 얼굴을 맞아 코가 골절됐

다. 두 차례 모두 얼굴 쪽 부상이어서 트라우마도 염려했지만 박민은 “괜찮다”며 의연한 자세를 보였다.

박민은 “올 시즌은 적응하느라 힘들었다. 타격폭도 수정 중이었고 적응도 될만한 때마다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박민은 1군에서 6경기 2타석 1득점, 퓨처스에서는 38경기 129타수 22안타 1홈런 9타점을 기록했다.

그는 “고교 때와 1군, 2군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상대 투수가 모두 달랐다. 타석에서 여유가 없었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신인이지만 욕심내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려 하고 세계 치러하면서 안 좋았던 것 같다”고 돌아왔다. 이어 “1군에 오래 있지 못해 아쉽지만 야구는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작이 늦다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 할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6일부터 시작된 함평 마무리훈련에 2021년 신인이 합류하면서 박민은 막내에서 벗어났



올 시즌 프로 해를 경험한 KIA 타이거즈 내야수 박민(오른쪽)과 홍종표가 함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에서 진행중인 마무리훈련을 통해 2년차가 되는 2021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박민과 홍종표는 16일부터 광주로 이동, 1군 선수들과 마무리훈련을 하게 된다. /KIA 타이거즈 제공

다. 2년 차가 되는 내년에는 더욱 차분하게 시즌을 소화할 계획이다.

박민은 “마무리캠프부터 시작해서 2년 차답게, 경험한 사람답게 조절도 하면서 할 일 열심히 하고 보여줄 부분은 보여주고 싶다”면서 “올해는 결과에 집착하면서 힘도 많이 들어가고 안타가 안 나오니 마음이 급해졌다.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다치고 그랬던 것 같다. 체력 조절하면서 시즌을 소화하고 싶다”고 회상했다.

이어 “올해 다친 건 애통했다 생각하고 마무리

캠프부터 준비를 잘할 생각이다”고 말한 뒤 “1군 마무리훈련에 불러주셔서 좋다. 열심히 할 생각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2라운드 지명으로 입단한 홍종표는 올해 1군에서 40경기에 나섰다. 80타수 20안타(타율 0.250) 7득점 7타점이다. 퓨처스에서도 46경기를 뛰며 169타수 46안타(타율 0.272)를 기록했다.

홍종표는 “1군을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나면서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

다”고 돌아왔다.

그는 “1군에서는 매 순간이 중요하다.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고교 시절 결승전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 안타를 20개밖에 못 쳤는데, 선배님들이 신인으로 이 정도만 것도 잘한 거라고 칭찬해주시면서 편하게 해주셨다”면서 “많은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힘든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내야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만큼 경쟁하면서 보고 배우는 게 많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두 배로 집중하면서 신중하게 하다 보면 실력도 더 늘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종표는 마무리훈련에 합류한 후배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홍종표는 올해 1월부터 팀에 합류했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2021신인들은 11월 훈련이 가능해졌다.

그는 “저도 작년에 11월부터 합류했다면 적응도 빨리하고 행동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아쉽다. 작년 비시즌에 준비를 제대로 못 했는데 잘했다면 올해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마무리캠프 첫날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홍종표는 “1군에 있으면서 배울 점이 많았다.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2년차가 되는 만큼 지금부터 이 악물고 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거 아니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임해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군에서의 40경기가 앞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기술훈련도 천천히 끌어올리기로는 처음부터 강도를 높여서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우즈의 티샷 12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연습라운드 4번홀에서 타이거 우즈가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마지막 담금질

SK핸드볼코리아리그 27일 개막  
오늘부터 5박 6일 동안 전지훈련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대장정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는 오는 27일 개막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펼쳐지며 광주도시공사는 28일부터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한다.

시즌을 앞둔 광주도시공사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천안, 청주, 익산으로 마지막 전지훈련을 떠난다.

지난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창단 이후 처음으로 4승을 하며 6위를 차지한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시즌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 기초체력과 코어훈련 등 각종 전술훈련에 매진해왔다. 이번 마지막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과 팀워크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 시즌 개인상 3관왕(MVP·득점왕·베스트 7)을 차지했던 강경민(CB), 국가대표 출신 원선필(PV), 노련한 팀의 맏언니 송해림(CB) 등은 팀 내 주춧돌 역할을 하며 후배 선수들과 함께 기량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올해 신인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아 광주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개막을 앞두고 천안, 청주, 익산으로 마지막 전지훈련을 떠난다.

도시공사 유니폼을 입게 된 이슬기(LB·조대여고), 박지영(RB·휘경여고)도 전지훈련에 참가해 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오세일 감독은 “올해 코로나19로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아 각 팀의 전력을 예상하기가 다른 해에 비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른 팀들도 그렇지만 지금은 선수들의 체력과 전술 훈련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28일 오후 2시 SK 슈퍼글

라이더즈와 코리아리그 개막전을 갖는다. 개막전을 대비해 경기 장소인 청주국민생활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오세일 감독은 “SK슈퍼글라이더즈와의 개막전 장소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자신감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라며 “지난 태백산기대회에서 SK를 꺾었던 경험을 되살린다면 SK 전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 원광대 정영웅 대통령기대학야구 타점상

22타수 10안타 7득점 7타점 맹활약 우승 일조

원광대학교 정영웅(3년)이 제54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타점상을 받았다.

원광대는 최근 황성베이스볼파크에서 열린 대통령기대학야구에서 우승하며 3년 만에 대회 우승기를 탈환했다. 원광대의 전국대회 우승은 2018년 KUSF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 우승에 이어 2년 만의 쾌거다.

광주일고 출신 정영웅은 이번 대회 32경기 22타수 10안타 7득점 7타점(타율 0.455)으로 맹활약을 펼치며 원광대의 우승에 일조했다. 정영웅은 5경기 중 4경기를 2번 타자로 나섰다. 경기 출루, 쉬지 않고

베이스를 훑으며 상대팀 마운드를 흔들었다. 올해 원광대 편입 후 첫 선발출장한 대회에서의 활약이기에 의미가 더 컸다.

정영웅은 타격은 물론,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가진 왼손타자다. 특히 한양대와의 대회 결승전에서 불방망이를 과시했다. 6타수 3안타 2득점 3타점이었다.

원광대는 1회초 7점을 뽑아내는 빅이닝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정영웅도 1회부터 공격력에 힘을 보탤었다.

무사 1루에서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홈을 밟았고 4회초에는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6회초에는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정영웅

뽑아내며 매섭게 방망이를 들렸다.

32강 제한대전 4타수 3안타 1득점 1타점, 16강 경희대전 5타수 2안타 1득점 1타점, 8강 동강대전 2타수 무안타 1득점, 4강 강릉영동대전 5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

중견수인 정영웅은 올해 13경기에 출전, 29타수 12안타 11득점 7타점으로 타율 0.414를 기록했다.

정영웅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에도 제약이 많았던 데다 앞선 경기에서 많이 나서지 못했다. 그동안 선배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승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진화 기자